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자 복지 정책적 함의*

안정임**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부교수)

이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주요 이슈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수용자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와 함께 고찰하였다. 매체 폭발, 수용자 선택권 무한 확대로 특징지어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과연 수용자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수용자 복지의 대척점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것이 수용자의 미디어 활용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디지털 격차 연구의 방향성 및 수용자 복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은 물리적 접근 확대와 기초 기술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 격차는 사회구조적 제반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속성, 디지털 미디어 평가태도 및 활용능력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중층개념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특히 활용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디지털 격차의 학술적 연구 및 정책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2단계 과정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1단계에서는 기기보급과 기초기술 교육을, 2단계에서는 정보 추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 교육으로서의 리터러시 교육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디지털 격차,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자 복지

* 이 연구는 2006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바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jiahn@swu.ac.kr

1. 문제제기: 디지털 미디어와 수용자의 재검토

본격적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접어들면서 최근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이슈는 수용자 복지 문제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디지털 미디어 관련 논의가 사업자와 공급자 위주의 산업적, 정책적 차원에서만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데 대한 반성적 인식 때문이다. 둘째는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인 방송, 통신의 융합과 이와 연계된 수용자의 속성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학문적 탐구는 주로 ‘보편적 서비스’라는 정책적 문제와 ‘디지털 격차’라는 사회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강홍렬·차남경·강상현·김은미, 2002; 김문조·김종길·2002; 박은희, 2005; 이상규·김형찬·김희수·곽정호·오기환, 2002; 이호규, 2000; 정애리, 2005b). 이 논의에서는 지금까지 통신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가 방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¹⁾

보편적 서비스의 필요성은 ‘디지털 정보 격차’라는 사회적 현상에 근거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사회의 ‘빛과 그림자’ 중 그림자의 부분에 해당되는 디지털 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디지털 정보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구조적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순환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1) 사실 방송통신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한 보편적 서비스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디지털 미디어 자체가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과 라디오, TV 등 기존 매스 미디어적 양식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는 혼합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특히 TV와 컴퓨터가 결합한 인터넷 TV와 초고속 인터넷망을 결합시킨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등장은 인터넷이 방송과 구분되는 통신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기본적인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상용화, DMB 서비스 등을 함께 고려하면 디지털 격차와 수용자 복지의 논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요구받는 지점이다.

디지털 격차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관심을 받아왔으며, 인터넷 및 정보 미디어 강국에 속하는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그러나 디지털 격차를 단지 ‘접근(access)’ 유무로 판단하여 ‘정보를 가진 자(haves)’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have-nots)’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Selwyn, 2004; 강홍렬 외, 2002; 김문조, 김종길, 2002; 정애리, 2005b).

디지털 격차는 상당히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개인적 맥락에서 조망되어야 할 다차원의 개념이며, 따라서 이를 첨단 미디어 기기 보급 및 접근을 향상이라는 정책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수용자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화와 기회의 확대, 정보 선택 능력이 강조됨에 따라 격차라는 것은 더 이상 ‘차이(gap)’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 문제이며 바로 이 능력이 참여와 배제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Warschauer, 2004).

수용자 복지 논의의 활성화 원인 중 두 번째인 수용자 속성에 대한 재조명은 디지털 미디어가 상징하는 수용자의 ‘능동성’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기존의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제기된 적극적 수용자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미디어 내용을 선택, 이용하고 그를 통한 충족을 이끌어내는 존재였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미디어의 수용자들은 ‘상호작용성’, ‘쌍방향성’, ‘네트워크성’ 등의 차원에서 훨씬 더 다각적인 적극성과 욕구충족 능력을 갖춘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용자 복지와 그 정책의 시행이라는 것은 선택권에 집중되어 있던 과거의 적극적 수용자 인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 미디어의 뉴스는 취재한 정보 중에서 일부만을 제공하고 시청자들은 이러한 제한된 정보 중에서 다시 필요로 하는 내용만을

선택하는데 불과했다. 그러나 웹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재료적 성격의 정보가 대량으로 제공된다. 이 경우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자는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즉 텔레비전 등의 기존 미디어에서는 ‘정보파악능력’이 중요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정보처리능력’이 요구된다(宮田加久子, 1993).

정보처리능력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활용하며, 평가하고, 전달하고 그로부터 만족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과 일맥상통한다(Gilster, 1997; Livingstone, et al., 2005).²⁾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적극적 수용자는 기기를 소유하고 사용할 줄 아는 차원이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수용자 복지 논의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의 상용적 존재로서의 수용자는 누구이며, 그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어떤 것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자 특성들이 디지털 격차의 현상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설계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즉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수용자 복지라는 큰 주제를 놓고 현재 수용자 복지의 대책점이라 할 수 있는 1) 디지털 격차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것이 2) 수용자의 미디어

2)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인 ‘미디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접근하고(access), 비판적으로 이해하며(understand), 제작할 수 있는(create) 능력’을 디지털 미디어로 확대시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TV 등의 영상매체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존 미디어와 차별화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보리터러시, 컴퓨터리터러시, 네트워크리터러시 등 다양한 개념이 통합된 멀티리터러시적 특징을 지닌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안정임(2002)의 논문을 참고할 것.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3) 향후 디지털 격차 연구의 방향성 및 수용자 복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디지털 격차의 사회적 의미

디지털 정보 격차에서 ‘정보(information)’는 초기 지식격차 가설(Tichenor, Donohue & Olien, 1973)에서의 ‘지식(knowledge)’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종래의 지식이 공공적 사안에 대한 판단 혹은 사회적 행동의 기초라는 의미였다면 디지털 격차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의미는 기초적인 일상의 자원, 삶의 토대 내지 가치로서의 의미를 내포하며, 단지 매스 미디어를 넘어 다양한 매체들로 그 외연이 확대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윤석민·송종현·김유경·김주형, 2004).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다양한 제반 요인들을 탐구하는 연구들은 크게 다음 네 가지의 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한다(Sassi, 2005).

첫째, 테크노크라시 관점이다. 이는 정보격차에 대한 초기 시각으로 인터넷은 점차로 일상생활의 필수요소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보급과 배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았다. 이는 지금까지도 대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의 근간이다.

둘째, 사회구조적 관점이다. 이는 인터넷은 분명 잠재력이 있는 뉴미디어이기는 하나 여전히 사회구조적 불평등은 지속될 것이고, 오히려 인터넷이 그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더 촉진시키게 되리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정보 접근과 참여, 표현의 기회는 여전히 기존의 불평등구조를 답습할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정보구조와 소외 관점이다. 이 관점의 대표주자인 래쉬(Lash, 1994; Sassi, 2005에서 재인용)는 정보 격차 중에서도 특히 참여와 사회적 통합, 배제와 소외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정보사회는 ‘신(新) 하층계급’을 만들어 내는데 이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소외된 사람들로 직업이나

지역 뿐 아니라 사회적 의무나 문화시민적 권리 등 삶 전반에서 불평등을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넷째, 현대화와 자본주의 관점은 정보 기술의 탄생 자체가 현대 자본주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상정하고 정보 분배와 관련한 불평등은 우연적 산물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이며, 따라서 정보 기술 자체를 또 하나의 신매체로 볼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인프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이상의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최근의 디지털 정보격차 연구들이 주목하는 것은 셋째와 넷째 관점이다. 정보기술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정보 미디어들은 구조적 불평등을 내포한 사회경제적 산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도 구조적 요인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기반으로 현재의 정보 격차를 바라보아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기기 보급과 물리적 접근 확대라는 격차 해소 정책들은 치명적인 맹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디지털 격차를 정보의 물리적 접근과 이용능력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이고 단계적(hierarchical) 개념으로 파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Selwyn, 2004). 기술에 대해 접근한다고 해서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기술 활용'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도 자신만의 중요성과 용도에 따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관여를 통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단순한 사용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Bonfadelli, 2002; Silverstone, 1996).

디지털 격차가 단일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다층구조의 개념임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상당히 많다. 웰만, 하스, 위트, 햄프턴(Wellman, Hasse, Witte & Hampton, 2001)은 디지털 소외자들이 불평등한 기술적 접근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에서도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중적 디지털 격차(double digital divide)'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안다고 해도 '얼마나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와 '그것을 찾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에 따른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하기타니(Hargittai, 2002; Jung et al., 2005에서 재인용)는

이를 ‘제2단계 디지털 격차(second-level digital divide)’라고 명명하였다.

디지털 격차의 단계적 연구를 강조한 셀윈(Selwyn, 2004)은 디지털 격차를 구성하는 축을 2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그가 말하는 2개의 축은 첫째, 여러 가지 상이한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불평등, 둘째, 정보기술의 직간접적 이용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불평등으로 나누어진다(<표 1> 참조).

<표 1> 디지털 격차의 단계

정보기술에 대한 형식적/이론적 ‘접근’	정보기술의 이론적 보급 (각 개인의 가정, 주거지역, 직업현장)
정보기술에 대한 효율적 ‘접근’	정보기술의 실제적 보급 (각 개인의 가정, 주거지역, 직업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정보기술의 사용	정보기술과의 접촉. 의미 있는 접촉이 아닐 수 있음. 중장기적 결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음.
정보기술과 내용에 대한 ‘관여’	정보기술의 ‘의미 있는’ 이용. 기술과 내용에 대해 이용자가 통제와 선택권 보유.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중요하며 관련성 높은 활용
단기결과 - 실제와 인식	정보기술 이용의 즉각적/단기적 결과
장기결과 - 실제와 인식	사회참여 관점에서 정보기술이용의 중장기적 결과. 생산적 활동, 정치적 활동, 사회적 활동, 소비적 활동, 보존성 활동 차원에서 조망

출처: “Reconsidering political and popular understanding of the digital divide,” by N. Selwyn, 2004, *New Media & Society*, 6, p. 352.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은 이러한 복합적인 개념의 의미를 간과한 채 지나치게 단순화된 상황에서 지속되어 왔다. 디지털 격차를 유발하는 지식, 정보, 정보습득을 위한 접근기회, 기술, 매체 등을 골고루 배분하게 되면 사회적 불평등 현상으로서의 디지털 격차는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정책적 시각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대표적인 디지털 미디어인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이자 ‘보편적 접근’으로 규정하고 특정 연도까지 어느 정도의 보급률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³⁾

그러나 과연 디지털 격차는 좁혀지고 있는가? 인터넷 보급과 이용자 비율이 90% 이상이 되면 한 사회의 디지털 격차는 사라졌다고 보아도 좋은 것인가?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무엇이 “만족할만한” 접근인가라는 기준 자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접근이라는 개념이 어느 고정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목표치 자체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유동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시점의 물리적 접근을 기준으로 한 격차 해소정책 결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다른 양상의 격차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플랫폼의 종류(컴퓨터, 휴대폰, 디지털 TV, 다양한 개인 미디어기기 등)가 확대되고, 접속의 서비스(초고속 연결 여부), 그리고 접속이 가능한 장소의 범위 등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접근이 가능한가?”의 여부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무엇에 대한 접근인가?”로 바뀌고 있다(Livingstone et al., 2005: 15).

3)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매우 발 빠르게 시행되어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1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2차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발표, 정보 격차 사전 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 취약계층 정보활용 여건 개선,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등을 중점과제로 선언하였다.

3. 디지털 격차의 재해석

1) 디지털 격차 양상: 접근과 이용의 차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 격차 연구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디지털 격차를 설명하는 변인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는 경제수준, 성별, 연령, 인종차이 등의 인구학적 요인들이 그 대상이 되었고, 가족이나 친구, 동료관계 등 사회적 네트워크 역시 개인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풍, 웰만, 월크스(Fong, Wellman & Wilkes, 2001; Jung et al., 2005에서 재인용)는 사회경제적 수준 외에 가족 구조적 특성(가족규모, 자녀 유무)과 거주 지역 특성(이민자 비율, 지역-도시-교외 지역 등)이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의 디지털 격차 연구들은 ‘접근’과 ‘이용’ 간을 구분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한다. 디지털 격차는 이제 “접근을 넘어(beyond access)” 인터넷 연계의 질적 특성의 관점에서 탐구되고 있다(Bonfadelli, 2002; DiMaggio·Hargittai·Neuman·Robinson, 2001; Jung et al., 2005). 디지털 격차에서 말하는 ‘접근’이나 ‘이용은 전혀 다른 세부요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표 2> 참조).

예컨대 사람들은 휴대폰과 같은 경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 기기구매 비용이 부담이 되기보다는 유지비용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용 측면에서는 격차 발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경우에도 접속되어 있다고 해도 이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접속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 외에, 가정에서 인터넷을 할 시간적 여유,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여부도 문제가 된다. 또한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인터넷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의 여부와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기초능력이 여전히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표 2> 디지털 정보격차 분석 변인

접근(Access)	이용(Use)
기술적 접근	기술적 리터러시
- ICT 인프라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대역폭	- 기술적 활용능력 - 사회인지적 활용능력
사회적 접근	사회적 이용
- 구매력 Affordability - 자각 Awareness - 언어 Language - 콘텐츠/유용성 Content/Usability - 지리적 위치 Location	- 정보추구 Information Seeking - 자원동원 Resource Mobilization - 사회운동 Social Movements -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 사회소속 Social Inclusion

출처: “디지털 정보격차의 재정의와 주요국 현황”, 유지연, 『정보통신정책』, 2003. 12, 61쪽.

인터넷 접속을 통해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항상 얻을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은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용하지도 않으며, 어떤 정보는 특수 분야의 특수층에게만 열려있고 또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자루스와 모라(Lazarus & Mora, 2000)는 저소득층의 인터넷 이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이 조사한 저소득층 성인들은 구직 안내, 지역의 집값 정보, 지역 소식 등의 정보가 영어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혹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1,000개의 웹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직업과 관련된 구직정보는 거의 없었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구성된 내용은 어린이용뿐이었으며, 영어 외의 언어로 제공되는 사이트는 거의가 외국 사이트들로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고, 지역 소식은 거의가 쓸모없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디지털 격차의 원인이 단지 접근 여부가 아니라 이용의 환경 및 질적 특성에 있음을 증명해 준다.⁴⁾ 오히려 진정한 격차는 ‘접근 이후’

4) 셀윈(2004)은 이용(use)의 개념을 ‘사회적 참여(social inclusion)’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들을 포함시켰다: ① 생산적 활동(경제적, 사회적

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격차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기존의 격차 발생요인들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격차 이후의 관련요인들을 탐구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 디지털 격차 관련변인의 상호작용성

리빙스톤, 밴 쿠브링, 썬민(Livingstone, van Couvering & Thumim, 2005)은 디지털 격차의 발생요인(barriers)과 해소요인(enablers)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① 디지털 격차 발생요인: 연령 / 사회경제적 지위(교육, 소득 포함) / 성 / 장애여부 / 인종, 지역성 / 영어숙련정도
- ② 디지털 격차 해소요인: 기술 구성과 콘텐츠 / 성인 교육 기회 / 소비자 정보 및 의식 / 미디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 인식 / 자기 효능감(뉴미디어 기술사용 능력 및 자신감) / 접근 수용 및 유지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의 지원 / 가족 구성(특히 자녀 유무) / 직장에서 컴퓨터 및 신기술 사용 여부 / 제도적 정책수립자

이 구분에서 흥미로운 것은 격차의 발생요인과 해소요인 간의 차별성이다. 디지털 격차를 일으키는 요인이 경제 수준과 이와 연관된 인구학적 요인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은 개인의 인식과 태도, 능력과 관련된 요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개인

으로 가치 있는 활동 참여), ② 정치적 활동(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에의 참여), ③ 사회적 활동(가족, 친구, 문화집단, 공동체와의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참여), ④ 소비적 활동(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서비스와 물품 소비), ⑤ 보존적 활동(저축, 연금, 부동산 소유와 축적). 그는 정보기술의 영향은 이러한 척도를 통해 평가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어떠한 기술 접근과 이용이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적 속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 디지털 격차 연구들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능력 정도에 관심을 갖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정보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개념은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Eastin & LaRose, 2000; Ren, 2000). 밴두라(Bandura, 1986)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자기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위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⁵⁾ 이를 인터넷 미디어에 연계시켜 보면, 웹 검색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이 분야에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관심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인터넷과 관련된 자기 효능감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지금과 앞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를 통해 습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스틴과 라로즈(Eastin & LaRose, 2000)는 초기 인터넷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복잡성, 인터넷에 대한 기초지식 여부, 편안함, 만족도 등을 들고 이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인터넷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고, 그에 대해 만족도도 낮으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낮을 수밖에 없고, 자연히 이들은 향후 인터넷을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실제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먼로, 허프, 마콜린, 콤포(Munro, Huff, Marcolin & Compeau, 1997)는 컴퓨터 사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그 사람의 실제 컴퓨터 사용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즉 컴퓨터에 대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실제로 컴퓨터 사용능력의 폭이나 깊이, 정밀도 등에서도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 개념은 인터넷을 아직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관심이

5) 자기 효능감 개념은 Albert Bandura(1986)의 사회적 인지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 인지이론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적 압력이나 독특한 상황적 요건, 그리고 인지적 요인 및 성격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인구학적 변인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취하는 행위는 상황적, 환경적 요인의 결과물이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요인들은 행위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주목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인지적 요인은 '결과에 대한 기대치'와 '자기 효능감'이다.

높은 이용자에게 특히 의미가 있다. 인터넷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터넷은 복잡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찰은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의 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매체 자체에 대한 개인의 태도 역시 의미 있는 격차 관련요인으로 판명되었다(Durndell & Haag, 2002; Eastin & LaRose, 2000). 여기에는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한 감정적 태도, 불안감이나 좌절감 여부, 스트레스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불안감이나 컴퓨터 등 테크놀로지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접근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의 위험성이나 문제점을 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디어 자체에 대한 접근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을 위험한 매체로 평가하거나 디지털 미디어를 불필요한 하이테크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에서 디지털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형태의 디지털 격차 하위집단으로 존재한다. ‘갖지 못한 집단(have-nots)’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집단(want-nots)’인 셈이다.

2003년도 BSA(British Social Attitudes)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다수(51%)는 ‘관심이 없어서’라고 답했고, 28%는 기술이 서툴러서, 29%는 컴퓨터나 인터넷 구매 비용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TIA(2002)의 조사에 의하면 정보기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1) 이용기회와 필요성의 부재, (2) 위험성 등으로 미디어 자체의 거부, (3) 경제적 결핍, (4) 사용기술 결핍, (5) 시간 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 조사는 디지털 격차의 발생 원인이 단지 외부적 환경여건이 아니라 내면적 태도 및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침단 미디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동일한 인구학적 집단 내에서도 목격된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격차 연구들은 동일 집단, 즉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집단 구분을 하고 각 집단 내에서는 격차의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개인적 속성 및 능력,

심리적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격차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페이스와 퍼롱(Facer & Furlong, 2001)은 디지털 미디어 세대로 일컬어지는 어린이 집단 내에서 디지털 격차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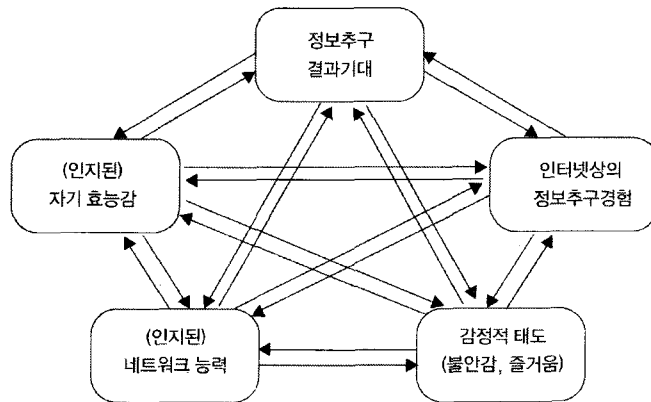
그들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모두 ‘사이버키드(cyberkid)’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오류라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에 속해 있었고, 실제로 이를 좋아할 뿐 아니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를 통해 페이스와 퍼롱(2001)은 이러한 생각이 오판이며 동일한 연령층의 어린이 집단 내에서도 디지털 격차는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총 855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서베이와 인터뷰를 병행한 이 연구에서 어린이들의 인터넷과 컴퓨터 사용에 대한 태도 등이 디지털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어린이들 중에는 인터넷과 컴퓨터 사용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며, 우리가 흔히 추측하듯이 컴퓨터를 잘 하는 것이 똑똑하다거나 앞으로의 성공과 연결된다고 믿지 않는 어린이들도 많았다. 심지어는 스스로 ‘컴퓨터 비사용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acer & Furlong은 어린이들은 모두 ‘사이버키드’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나 어린이 대상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테크노필(technophile, 기술애호자)’과 ‘테크노포브(technophobe: 기술혐오자)’ 모두를 포괄하는 열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김, 린, 청(Jung, Kim, Lin & Cheong, 2005)은 동아시아권 연구를 통해 청소년 집단 내의 디지털 격차 양상과 변인을 조사하였다. 인터넷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 싱가포르, 대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능숙한 이용자인 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연계성은 (1) 인터넷 이용에서 문제발생시 해결지원 여부, (2) 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인터넷 이용 여부, (3) 친구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 등의 요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인구학적 집단 내의 디지털 격차 현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수용자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시사점이 크기 때문이다. Savolainen(2002)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격차가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 네트워크 능력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활용능력, 그리고 이용행태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개인의 정보추구행위론(information seeking theory)과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인터넷의 이용은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능력, 자기 효능감, 인터넷 이용이 상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는 인터넷 정보추구에 관한 경험 축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러한 경험은 다시 즐거움과 당혹감 등의 감정적 현상으로 연계된다. 예컨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제로 인터넷 이용의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인터넷 이용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높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정보추구행위가 더 활발해지고 그 행위로 인한 즐거움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 상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1> 네트워크 능력의 사회인지모델



출처: "Network competence and information seeking on the internet", by R. Savolainen, 2002, *Journal of Documentation*, 58, p. 222.

디지털 격차의 구조적 복잡성과 관련요인들의 상관성은 격차의 해소가 한두 가지의 여건 개선이나 물리적 확산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임을 시사한다. 이는 디지털 격차의 이론적 설명모델 중 하나인 S-Curve의 계층화 모델(Stratification Model)을 통해서도 설명된다(Norris, 2001; van Dijk, 2005; Rogers, 2003). 이 모델에 의하면, 디지털 기술 및 정보의 초기 채택자, 선형집단들은 혁신 채택과정에서 후속집단보다 경험의 축적과 지적 능력의 축적이 빨리 이루어지고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 구매도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격차의 간격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정보의 가치 평가와 창조적 활용이라는 질적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정보의 질적 격차를 가늠하는 기준은 개인의 창조적 정보활용능력이다. 이는 최근 디지털 격차 논의에서 주요 개념으로 등장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기기를 조작하고 사용할 줄 아는 접근적 차원의 기술(skill)을 의미하지 않는다. 초기 격차해소정책은 기기의 보급과 함께 기기 사용법을 교육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능력(digital skills)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수많은 디지털 정보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탐색, 선택,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그 정보를 개인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van Dijk, 2005).

4. 디지털 리터러시의 접목

요즘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을 보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문에 답하는 코너가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빨리,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는 능력과 정보를 외워서 기억해 내는 능력이 같은 것임을 시사한다. 이제는 지식의 습득이란 것이 보고 외워서 머릿속에 담아둠으로써 이루어지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즉시 찾아내서 활용하는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인터넷 리터러시, 더 나아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앞서 논의한 대로 양방향성, 네트워크화 등의 특성을 지닌 디지털 환경에서는 특정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일차적인 능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정보를 고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과 함께 하는 협동력과 자신만의 독창성을 결합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⁶⁾ 즉 주어진 해답을 빨리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Mishra, Nicholson & Wojcikiewicz, 2001).

디지털 격차에 있어서 리터러시의 의미가 커지는 것은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성, 쌍방향성이라는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 때문이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수용자들은 매스 미디어 시대와 같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메시지에 노출되지 않는다. 인터넷, DMB, IPTV 등 융합미디어 시대에는 어떠한 콘텐츠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전달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수용자들이 어떤 내적 동기와 욕구를 지니고 어떤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정보에 접근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 미디어 네트워크상에는 무한한 정보가 존재하지만 노드(node)가 연결될 때마다 새로운 의미와 정보가 생성되며 수용자에 따라 다른 해석과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정애리, 2005a).

이러한 환경에서는 수용자들의 적절한 정보 선택과 활용이 디지털 격차를 결정짓고 나아가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궁극적 복지 구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수용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어떻게 교육하고 보급하는가 하는 것은 디지털 격차의 정책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부상한다.

6) 2003년 UNESCO 주최, 정보사회에 대한 프라하 선언에서는 정보 리터러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보 리터러시는 개인의 정보 관심, 욕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인식, 검색, 평가, 조직하는 능력, 그리고 이슈를 검토하고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창조, 활용, 소통하는 능력을 포함한다”(The Prague declaration: “Towards an information literate society”, 2003).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 구체적 요소들에 대한 검토는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미디어의 접근 기술이나 능숙한 사용훈련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정보 과학 분야와 리터러시 교육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 격차 연구에서는 그로부터 개념적 도움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의 정의와 구성요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걸쳐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사용되어왔다. 이는 하이퍼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데 ‘멀티미디어 리터러시’로도 명명된다(Lanham, 1995; Bawden, 2001에서 재인용). 디지털 시대의 ‘리터러시’, 즉 문자해독으로 일컬어지는 이 용어는 모든 형식의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소리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괄하기 때문에 디지털 해독자(digitally literate)라면 모든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상정된다. 브라운(Brown, 2000)은 디지털 미디어를 다중적인 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요구하는 최초의 미디어로 정의한 바 있다.

길스터(Gilster, 1997)는 새로운 리터러시는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삶의 기술, 즉 운전면허증이나 더 나아가 ‘생존기술(survival skill)’이라고까지 강조한다. 그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 조작기술이 아니라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개념을 IT나 컴퓨터 리터러시와 분명하게 구분한다. 또한 그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디지털 리터러시의 가장 핵심은 ‘지식 통합(knowledge assembly)’이라고 보았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정보의 이해뿐 아니라 전통적 형식의 콘텐츠, 즉 책, 신문, 잡지 등을 모두 포함한 내용을 네트워크 도구로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인터넷 리터러시 혹은 웹 리터러시

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는 인터넷이나 웹 리터러시의 상위개념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전체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해도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사용하는 명칭 자체도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안정임, 2002).

디지털 시대의 리터러시 개념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보덴(Bawden, 2001)은 이를 ‘기술 기반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인터넷 리터러시, 하이퍼리터러시(hyperliteracy),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포함한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리터러시의 유형구분을 시도한 타이너(Tyner, 1998)는 컴퓨터 리터러시; 정보(Information) 리터러시; 테크놀로지(Technology) 리터러시; 비주얼(Visual)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리터러시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는 컴퓨터,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는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습득과 관련이 있는 반면, 정보, 미디어, 비주얼 리터러시는 교육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앞의 세 가지는 도구적 리터러시(tool literacies)로, 나머지 세 가지는 표상적 리터러시(literacies of representation)로 분류한 바 있다.

각 리터러시의 유형에 따라 그 안에 갖추어야 할 능력의 속성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네트워크 리터러시를 주창한 선도적 연구자인 맥클러(McClure, 1994)는 네트워크 리터러시를 ‘네트워크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네트워크의 개념은 ‘어떤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that)’과 ‘어떻게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how)’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크 리터러시 혹은 도구적 리터러시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초기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과 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사회적 기반 미디어로 확대되고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초기의 네트워크 중심의 리터러시는 보다 광범위한 능력을 포괄하는 리터러시 개념으로 확장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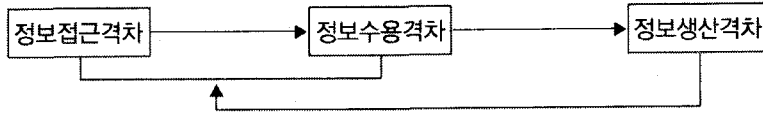
새보라이넨(Savolainen, 2002)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정보 추구 행위에 필요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능력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위로 정의한다(218).

- (1) 네트워크상의 정보원 및 구성체계 인지(인터넷에 어떤 정보가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식)
- (2) 정보접근을 위해 웹 검색엔진 등과 같은 ICT 도구의 기술적 사용
- (3) 정보의 판단, 즉 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 부적합 정보의 배제와 개별적 필요정보 선택
- (4) 커뮤니케이션, 즉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정보 욕구 및 선호 정보유형을 표현하는 메시지의 창조 및 전달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네 번째 리터러시의 특성으로 제시된 정보생산 능력이다. 이는 정보 수용자로서의 활용을 강조한 이전의 리터러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보 창조자로서의 리터러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두진과 김지희(2004)는 정보격차는 기기와 서비스 접근(accessibility)과 정보이용능력(literacy)뿐 아니라 정보의 생산적 활용(productivity)의 차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격차까지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정보생산능력이 디지털 격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은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정보격차해소백서』 2005년판에는 ‘정보격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면서(<그림 2> 참조), 향후 정보 생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5).

<그림 2> 정보격차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출처: 『2005 정보격차해소백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25쪽.

오늘날의 첨단 미디어는 일방적인 보도로 일관하던 종전의 매스 미디어와는 달리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까닭에 정보격차에는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려는 정보 수용자의 역할 못지않게 유의미한 정보를 창조하거나 제공하는 정보 생산능력이 부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접근 및 정보수용이라는 이원적 도식에 기초한 수용자 모형을 넘어 정보공급의 측면까지 고려한 새로운 정보격차 모형이 설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보 격차 모형에서의 핵심적 개념은 정보 생산력, 말하자면 멀티미디어 교신에 사용될 텍스트 생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되는 텍스트에는 말과 글 외에 사진, 그림, 음향, 소리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포함된다. 따라서 거기에는 인지적 학습을 통한 해독력이나 이해력 못지않게 감성교육을 통한 정서적, 심미적 판별력이 요구된다. 요컨대 첨단 정보사회의 가치를 향도할 새로운 인문학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정보격차해소백서』, 2005, 25쪽).

디지털 격차를 설명하는 기준으로서 정보 생산능력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자신이 접한 정보 혹은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현 형태,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형태, 더 나아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과 메시지를 디지털 콘텐츠의 형식으로 제작하여 다수에게 배포하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바로 그러한 참여성으로 인해 기존의 미디어와는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미디어적 참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디지털 격차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이다.

참여와 표현수단으로서의 디지털 미디어 가능성은 인터넷의 개인 블로그 활동, 동호회 및 다양한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발현될 뿐 아니라 이동전화를 통한 다양한 정체성 표현으로도 확인된다. 이동전화의 디지털 격차를 연구한 윤석민 외(2004)의 연구에서는 이동전화를 통해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정도에 있어서 집단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가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강내원, 2004; Shah et al., 2001a; Shah et al., 2001b; Tolbert & McNeal, 2003). 이들 연구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수집이나 이용이 사람들의 시민생활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이며, 그러한 참여의 정도를 구분 짓는 잣대가 연령을 기준으로 한 세대 차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디지털 격차 논의와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 연령과 세대는 디지털 미디어의 양적, 질적 이용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인데 바로 그러한 이용의 격차가 시민 참여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격차가 단순히 미디어 이용과 정보 활용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참여와 표현, 나아가 사회적 참여라는 범주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디지털 격차 논의는 정보 이용과 활용의 차원으로 확대 되기는 했으나 아직 참여를 통한 격차 해소의 수준까지 폭넓게 아우르지는 못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행에서도 그러한 한계는 그대로 드러난다. 유지열(2002)은 우리나라 정보격차를 지수(index) 접근을 통해 연구하였는데, 여기서 사용된 지수는 정보인식지수, 정보접근지수, 정보이용지수, 정보역량지수의 네 가지이다. 한국지역정보학회가 개발한 정보불평등지수를 활용한 이 지수들은 기존의 격차 연구들에 비해 다양한 측면의 격차 양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초인식과 접근 여부 외에 컴퓨터 교육 이수 경험 여부, 컴퓨터 이용능력 정도 등을 추가하고 있을 뿐 정보의 선별, 문제해결 활용, 표현, 생산, 참여 등의 격차 양상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정보통신부의 『정보격차해소백서』에 제시된 자료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정보격차 현황을 조사한 지표는 접근지수, 역량지수, 활용지수의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는데, 질적인 차원의 정보역량 지수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수와 차별화되나, 여전히 그 측정내용에 있어서는 일차적 활용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세부적 구성요소들을 상기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로 파악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 접근과 이용이 아직 표면적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결과적으로 격차해소 정책 방향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준다. 정애리(2005b)는 디지털 격차와 관련하여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놓치고 있는 점 중의 하나가 격차의 심각성은 수용하면서, 격차를 해결과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단순성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더 이상 디지털 격차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확대와 사회적 다수를 포용하는 점진적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디지털 격차가 이제 사회 전체의 정보 수용자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즉 지금까지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삶의 조건으로서 디지털 격차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수용자 복지정책적 함의: 디지털 격차에서 디지털 다양성으로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수용자 복지의 보편적 전제 중 하나는 디지털 미디어의 종류와 풍부한 콘텐츠가 수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은 대부분 예측이나 전망일 뿐 실제로 수용자들의 욕구내용과 서비스 내용 간의 관계, 서비스 비용의 문제 등 구체적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수용자들이 어떤 동기와 기대를 가지고 미디어를 접근하고 이용하는지, 어떠한 사회문

화적인 맥락에서 특정한 미디어와 정보가 활용되는지, 수용자들은 과연 확대된 선택권을 얼마나, 어느 수준에서 향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은 불분명하다. 오히려 몇몇 연구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선택권 확대를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김은미·윤석민, 2003; 박소라, 2003).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와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더구나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 표현이나 사회적 참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는 디지털 격차가 미디어와 정보 확대만으로는 좁혀질 수 없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적인 현상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준다.

지금까지 디지털 격차 정책은 정보와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의 접근과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전형적인 수용자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더 이상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강홍렬 외(2002)가 지적한대로 디지털 정보 격차를 단순히 도구적인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고려했을 경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처방안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것은 이제까지 디지털 정보 격차에 관한 정책들이 마치 움직이는 과녁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새로운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변화하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

이수영·박은희(2002)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다양성과 보편성의 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선택성을 확대하는 것이 수용자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디지털 시대의 선택성은 이제까지 처럼 주어진 것 안에서의 단순한 선택성이 아니라 수용자가 자신의 욕구를 무의식으로부터 끌어낼 줄 알고, 좋은 것과 필요한 것을 가려낼 줄 알며, 그것을 직접 선택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하는, 보다 확장된 의미의 선택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곧 디지털 리터러시에 근거한 선택성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건대, 수용자 복지 이념에 기초한 디지털 격차

정책은 2단계의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1단계는 정보와 기기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 차원의 정책,⁷⁾ 그리고 2단계는 정보의 활용과 선택, 평가, 창조적 생산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차원의 정책으로 구성할 수 있다. 1단계에는 기존의 사회구조적 불평등으로 야기되는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한 물리적 기기 보급, 확대, 기초 이용기술 교육 등이 해당된다. 2단계에는 개인적, 집단적 욕구와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를 알리고 참여할 줄 아는 시민의식 교육 및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일반적 미디어 교육 혹은 퍼블릭 액세스 활동지원 등을 통해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들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디지털 격차라는 연계선상에서 이해되기 보다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일반 수용자들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제작자의 입장에서 참여해보는 경험을 갖게 하는 훈련으로 시행되어 왔다.⁸⁾ 그러나 이는 주로 방송 프로그램을 둘러싼 교육이 대부분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은 정보통신부 등에서 시행하는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술교육 정도에 불과하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표출하거나 정체성을 표현하고 활성화하는 리터러시 접근적 교육은 아직 시도된 바가 없다.

7) 보편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affordable)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칭한다(이상규 외, 2001).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라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의 지리적 위치나 소득수준, 신체적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렴한 가격’은 이용자의 지불능력, 지불용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김영석, 2003). 이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전형적 디지털 격차해소정책과 일치한다.

8) 방송위원회에서는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미디어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부산을 필두로 광역시에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방송사들이 적극 나서서 지역민을 위한 시청자제작교육을 시도하고 있는데 미디어사업자들이 직접 미디어교육정책의 주체로 자임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박은희, 2005).

외국의 경우에는 최근 이러한 사례들이 관찰연구 등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풀어낸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한 준도시 지역에서는 교회를 인터넷 비디오 스튜디오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의 발판으로 삼게 되었다(Bäcklund, 2003; Sassi, 2005에서 재인용). 큰 화면과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하여 주민들은 지역 내 협송(narrowcasting)을 시작했고, 이러한 실험은 문화적 자기표현이라는 중요한 정보활용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이는 정치적 참여 활동으로 연계되면서 지역 사회 다양성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알래스카와 그린란드의 에스키모들에게도 인터넷은 자기정체성 표현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Christiansen, 2003; Sassi, 2005에서 재인용). 정체성 형성과정은 지역적, 공간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에스키모들에게 그들 집단 내의 연결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도 연결시키는 동적 과정으로 작용하였다. 인터넷은 에스키모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역할을 독특히 수행했다. 이는 기존의 다른 매체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매체들은 오히려 에스키모와 같은 지역적 소외자들을 문화적으로 더욱 고립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은 매체의 속성상 멀리 떨어진 지역주민들의 현실을 외부 세계와 연결시키고, 또한 외부 세계의 현실을 고립된 지역민들에게 전달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감소시키는지를 드러내 준다. 기존의 디지털 격차 감소정책들은 디지털 격차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정하는데 소홀했다. 기기 보급과 기초 교육 확대로 사람들이 쉽게 정보 미디어에 접근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격차가 해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디지털 격차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간과한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의 도입은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준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격차의 문제는 이를 야기하는 불평등적 경제구조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것을 비관적, 회의적 시선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정보 사회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생산적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인 오프콤(Ofcom)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을 다음 세 가지, 즉 (1) 민주주의, 참여, 적극적 시민성, (2) 지식 경제, 경쟁력, 선택권, (3) 평생학습, 문화적 표현, 개인의 성취로 규정하였다(Livingstone et al., 2005). 이는 지금까지 논의한 디지털 격차 논의가 지향해야 할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디지털 시대, 수용자 복지 구현을 위한 디지털 격차 정책이 과연 이 목적에 어느 정도 접근해있는가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연구와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Ⅱ 참고문헌

- 강내원 (2004). 인터넷과 대중매체 이용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대 집단간 비교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116~143.
- 강홍렬·차남경·강상현·김은미 (2002).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경제적 함의』(연구보고 02-18).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문조·김종길 (2002).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이론적, 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36호 4호, 123~155.
- 김은미·윤석민 (2003). 방송의 다채널화가 수용자의 매체이용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17권 제2호, 45~79.
- 박소라 (2003). 경쟁도입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989년 이후 지상파 방송 편성표 분석을 통하여. 『한국언론학보』, 47권 5호, 222~250.
- 박은희 (2005). 수용자복지 정책 제도화를 위한 개념적 접근: 수용자복지정책의 행위 및 성과분석모델.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와 수용자 복지에 관한 개념 탐색과 사례 연구』.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 안정임 (2002).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리터러시: 의미와 연구방향의 모색. 『교육정보방송연구』, 8권 3호, 5~24.
- 유지연 (2003). 디지털 정보격차의 재정의와 주요국 현황. 『정보통신정책』, 2003. 12.
- 유지열 (2002). 우리나라의 정보격차에 관한 지수(Index) 접근 연구. 『한국사회학』, 36권 1호, 223~246.
- 윤석민·송종현·김유경·김주형 (2004). 이동전화격차.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354~378.
- 이상규·김형찬·김희수·곽정호·오기환 (2002).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수영·박은희 (2002). 양방향시대 ‘수용자복지’의 개념화와 새로운 구형장치. 『방송연구』, 여름호, 65~87.
- 이호규 (2000). 이용자 성향을 고려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한국언론학보』, 45권 1호, 266~296.
- 정애리 (2005a). 디지털 미디어 액세스 개념의 확대와 범위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여름호, 293~321.
- _____ (2005b). ‘디지털 격차’ 담론의 변화와 그 함의: 확산 이론 S-curve 곡선의 재해석 가능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2호, 208~239.
- 최두진, 김지희 (2004).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활용방안. 『월간 정보격차 REPORT』, 1권 2호,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2005 정보격차해소백서』.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宮田加久子 (1993). 『전자미디어사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사회심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 Bawden, D. (2001). Information and Digital Literacies: A Review of Concepts. *Journal of Documentation*, 57(2), 218~259.
- Bonfadelli, H. (2002). The Internet and Knowledge Gap: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7(1), 65~84.

- Brown, John S. (2000). Growing up digital. *Change*, 32(2), 10~20.
- DiMaggio, P., Hargittai, E., Neuman, W. & Robinson, J. (2001). Social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07~336.
- Durndell, A. & Haag, Z. (2002). Computer Self Efficacy, Computer Anxiety, Attitudes towards the Internet and Reported Experience with the Internet, by Gender, in an East European Sampl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8, 521~535.
- Eastin, M. S. & LaRose, R. (2000). Internet Self-Efficacy and the Psychology of the Digital Divid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6(1), 3~24.
- Facer, K. & Furlong, R. (2001). Beyond the Myth of the 'Cyberkid' Young People at the Margins of the Information Revolution. *Journal of Youth Studies*, 4(4), 451~469.
- Fong, E., Wellman, M. & Wilkes, R. (2001). Correlates of the Digital Divide: Individual, Household and Spatial Variation. Jung et al. (2005)에서 재인용.
- Gilster, P. (1997). *Digital Literacy*, 김정래 역 (1999). 『디지털 리터러시』. 서울: 해냄.
- Hargittai, E. (2002). Second-Level Digital Divide: Differences in People's Online Skills. Jung et al. (2005)에서 재인용.
- Jung, J., Kim, Y., Lin, W. & Cheong, P. (2005). The Influence of Social Environment on Internet Connectedness of Adolescents in Seoul, Singapore and Taipei. *New Media & Society*, 7(1), 64~88.
- Lanham, R. A. (1995). Digital Literacy. *Scientific American*, 273(3), 160~161, Bawden (2001)에서 재인용.
- Lazarus, W. & Mora, F. (2000). Online Content for Low-Income and Underserved Americans: the Digital Divide's new frontier.
available: <http://www.childrepartnership.org>
- Livingstone, S., van Couvering, E. & Thumim, N. (2005). *Adult Media Literacy: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on Behalf of Ofcom*. University of London, Dep. of Media and Communications.
- McClure, C. R. (1994). Network Literacy: A Role for Librari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13, 115~125.
- Mishra, P., Nicholson, M. & Wojcikiewicz, S. (2001). Seeing Ourselves in the

- Computer: How We Relate to Technologies.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44(7), 634~641.
- Mossberger, K., Tolbert, C. & Stansbury, M. (2003). *Virtual inequality: Beyond the digital divid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Munro, M. C., Huff, S. L., Marcolin, B. & Compeau, D. (1997). Understanding and Measuring User Competence. *Information & Management*, 33(1), 45~57.
- Norris, P.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TIA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A Nation Online: How Americans Are Expanding Their Use of the Internet. Available: <http://www.ntia.doc.gov/ntiahome/dn/index.html>.
- The Prague declaration: Towards an Information Literate Society (2003. 9. 23). Livingstone, S., van Couvering, E. & Thumim, N. (2005)에서 재인용.
- Ren, W. H. (2000). Library Instruction and College Student Self-Efficacy in Electronic Information Searching.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6(5), 311~322.
- Rogers, E.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김영석 외 역. (2005). 『개혁의 확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Sassi, S. (2005). Cultural Differentiation or Social Segregation? Four Approaches to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7(5), 684~700.
- Savolainen, Reijo (2002). Network Competence and Information Seeking on the Internet: From Definitions towards a Social Cognitive Model. *Journal of Documentation*, 58(2), 211~226.
- Selwyn, Neil (2004). Reconsidering Political and Popular Understanding of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6(3), 341~362.
- Shah, D. V., Kwak, N. & Holbert, L. R. (2001a).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with Civic life: Patterns of Internet Use and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Political Communication*, 18, 141~162.
- Shah, D. V., McLeod, J. & Yoon, S-H. (2001b). Communication, Context and Community: An Exploration of Print, Broadcasting, and Internet Influences. *Communication Research*, 28(4), 464~506.
- Silverstone, R. (1996). *Future Imperfe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Technologies in Everyday Life. In W. H. Dutton (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Visions and reali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ichenor, P. J., Donohue, G. & Olien, C. (1973).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34, 159~170.
- Tolbert, C. J. & McNeal, R. S. (2003). Unraveling the Effects of the Internet on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2), 175~185.
- Tyner, Kathleen (1998). *Literacy in a Digital World: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Age of Informa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Van Dijk, J. (2005). *The Deepening Divide: Inequa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Newbury Park, CA: Sage.
- Warschauer, M (2004). *Technology and Social Inclusion: Rethinking the Digital Divide*. Cambridge, MA: MIT Press.
- Wellman, B., Hasse, A. W., Witte, J. & Hampton, K. (2001).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mmi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36~455.

(최초 투고 2006.9.1, 최종 원고 제출 2006.10.27)

Digital Divide and Digital Literacy on the Perspective of Audience Welfare

Jung-Im Ahn

Associate Professor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igital divide, one of the main issues in digital media environment, in relation with the digital literacy on the perspective of audience welfare. The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audience welfare policy with regard to the issue of digital divide which can be seen as the dark side of this flourishing digital technology society. The barriers and enablers of the digital divide are discussed with the question of how these factors are related with the digital literacy competence of audience. It has been criticized that both the research efforts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s on the digital divide had been set within the limitation of physical access to the digital equipment and technology. Recent studies suggested that the digital divide should be viewed in dynamic interaction of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psychological dispositions, inner attitudes toward digital media, competence and ability of audiences as well as socio-economic status of individuals. Despite the recent inclusive discussion, however, the role of digital literacy in the digital divide remains unexplore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question of access is not just to do with equipment, but with skills and knowledge that are required to use equipment. This notion suggest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digital divide policy establishment. This study proposes a two-stage solution for reducing the digital divide, in which the first stage focuses on physical access and technology education and the second stage on the digital literacy education.

Key words: Digital Divide, Digital Literacy, Audience Welfare